송강호 '비상선언' 박소담 '후쿠오카' 출연





영화 '기생충' 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

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4관왕을 차지하

면서 세계적으로 조명 받은 출연 배우들

시상식에는 송강호부터 이선균 ·조여정

·박소담·최우식·이정은·장혜진·박명훈까

으로 미국 아카데미 무대에 시상자로 나

선 적이 있다. '지.아이.조: 전쟁의 서막'

으로 할리우드에 진출한 이래 '레드: 더

레전드',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등에 출

연하며 할리우드에서 입지를 다진 덕분

의 다음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소담



조여정



최우식

'기생충' 배우들 차기 행보 벌써부터 관심

최우식 미국 영화 제작사에서 러브콜 '전생' 출연 검토 조여정·이선균·장혜진·박명훈은 TV 드라마서 맹활약

지 주연 배우 8명이 모두 참석해 스포트 라이트를 받았다. 최우식은 미국 영화 제작·배급사인 A 24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영화 '전생 송강호는 '기생충' 이후 영화 '비상선 언'으로 돌아온다. '관상' (2013) '더 킹' (Past Lives)' 출연을 검토 중이다. A (2017)의 한재림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24는 '문라이트'(2018), '유전' 신작으로, 항공기 테러를 소재로 한 재난 (2018), '레이디 버드' (2018) 등을 만든 블록버스터다. 송강호와 함께 이병헌이 제작사다. 미국 매체 콜라이더 등 외신에 투톱으로 출연한다. 따르면 '전생'은 어린 시절 한국에서 만 났던 두 사람이 나중에 다시 재회하는 내 이병헌은 2016년 한국인으로는 처음

> 용이다. 각본과 감독은 셀린 송이 맡았고, '노 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스콧 루딘과 '레이디 버드'의 엘리 부시가 함께 제작 한다.

'기생충'에서 제시카송으로 명성을 얻

은 박소담은 다음 달 개봉하는 장률 감독 신작 '후쿠오카'로 관객을 만난다. 28년 전 한 여자 때문에 절교한 두 남자와 귀신 같은 한 여자의 기묘한 여행을 담은 작품 으로, 박소담은 두 남자를 꿰뚫어보는 미 스터리한 캐릭터 '소담' 역을 맡아 권해 효, 윤제문과 호흡을 맞췄다.

조여정은 최근 종영한 KBS 2TV 드라 마 '99억의 여자'에서 '기생충' 속 부잣집 사모님과는 전혀 상반된 캐릭터를 선보 여 호평받았다. 우연히 현금 99억원을 손 에 쥔 여자 정서연 역을 맡아 입체적인 연 기를 선보였다.

'박사장' 이선균은 현재 JTBC 월화드

라마 '검사내전'에 출연 중이다. 남해안 에 있는 가상의 소도시 진영에서 일하는 생활밀착형 검사 이선웅 역을 맡았다.

'기생충' 속 기택(송강호) 부인 충숙 역을 맡은 장혜진과 지하 벙커에 살던 근 세 역의 박명훈은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 인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서단 (서지혜)의 엄마 고명은과 서단의 외삼 촌 고명석 역을 맡아 코믹 연기를 선보인

박 사장네 가정부 문광 역으로 인상 깊 은 연기를 보여준 이정은은 드라마 '동백 꽃 필 무렵'에서 동백이 엄마 역으로 빼어 난 연기를 선보인 데 이어 지난 7일 공개 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나홀로 그 대'에서 여주인공 소연(고성희)의 엄마 역을 맡았다. 최근 개봉한 영화 '미스터 주:사라진 VIP'에선 고릴라 목소리를 연 기했고, 영화 '내가 죽던 날' (박지완 감 독)에도 캐스팅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 고 있다. /연합뉴스

'기생충' 탄생시킨 한국 영화계 포스트 봉준호 '사냥의 시간' 윤성현 ·'지푸라기' 김용훈 주목

한국 영화는 물론이고 외국어 영화 최 초로 아카데미 최고상인 작품상 등 4관왕 에 오른 '기생충'은 하루아침에 탄생한 것이 아니었다.

2000년 초반 황금기를 누린 한국 영화 의 토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시기 봉준호 감독은 사회의 어두운 진실을 보 여주는 '살인의 추억'과 '마더' 등을, 박 찬욱 감독은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 이', '친절한 금자씨' 등 복수 시리즈를 내놨다. 이창동 감독은 삶에 대한 통찰을 담은 '오아시스'와 '박하사탕'을 내놨다. 이들 영화와 감독은 모두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상황에서 전 세계가 한국의 젊 은 감독과 배우를 주목하고 있다.

배우 윤여정과 한예리의 할리우드 진 출작이자 한국계 미국인인 정이삭 감독 의 '미나리'는 미국 최고 독립영화제인

선댄스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 상을 받았다. 지난해 김보라 감독은 데뷔 작 '벌새'로 전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36 관왕을 달성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을 연 출한 김용훈 감독은 장편 데뷔작인 이 영 화로 지난달 열린 제49회 로테르담 국제영 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거머쥐었다. 이 영 화는 인생 마지막 기회인 돈 가방을 차지 하기 위해 최악의 한탕을 계획하는 평범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범죄극이다.

데뷔작 '파수꾼'으로 호평받은 윤성현 감독 신작 '사냥의 시간'은 오는 20일 개 막하는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 베를리 날레 스페셜 갈라 섹션에 초대됐다. 이 영화는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 을 계획한 네 친구와 이를 쫓는 정체불명 의 추격자 이야기를 그리는 스릴러다.

'기생충'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관왕 대중문화계 환호 BTS "봉감독님 정말 정말 정말로 정말이지 정말 축하"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 올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권위인 작품 상을 비롯해 4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 루자 국내 대중문화계 인사들도 자기 일 처럼 축하와 환호를 보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10일 트위 터 계정에 봉 감독 사진과 함께 "봉준호 감독님 정말 정말 정말로 정말이지 정말 축하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배 우 최우식의 시상식 사진과 함께 '#우식 씨눈물훔치는거잘봤어요'라는 해시태그 를 달기도 했다. 최우식은 방탄소년단 멤 버 뷔와 절친한 사이다.

'기생충'에서 기우(최우식) 친구 민혁 역으로 특별출연한 박서준은 소셜미디어 에 작품상 발표 생중계 영상과 함께 "미쳤 다…" 하는 짧은 글을 올려 감격을 나눴 다. 최우식 시상식 모습을 찍어 올리며 "솔

직히 눈물 훔치는 거 나는 봄"이라고 덧붙 이기도 했다. 방송인 홍석천은 "세상에 왈 칵 눈물이 쏟아졌다. 봉준호 감독님 최고 다. 축하드립니다"라며 "한국인이라는 게, 한국에서 연기하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도 행복한 순간"이라고 SNS에 적었다.

팝페라 테너 임형주는 "너무너무 자랑 스럽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기분! 제 가 받은 것도 아닌데 제가 받은 것보다 더 기쁘고 값진 이 기분!"이라며 "봉준호 감 독 & BTS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하다"고 썼다.

네티즌들의 축하와 감격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김구 선생이 1947년 '나의 소원'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 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했던 것을 봉 감독 수상 이후 다시금 회자하면서 자랑 스러움을 나누기도 했다.

TV프로그램

이다.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나쁜 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더 게임:0시를 향하여(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역사저널 그날(재) 55 UHD 숨터(재)	00 포레스트(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헬로카봇 유니버스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BBB삼총사의 모험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고고씽 50 KBS 재난방송센터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동물교실 2(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우리말 겨루기(재)			00 뉴스브리핑
3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나쁜사랑(재)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00 두 번은 없다(재)	00 SBS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시노스톤 프라임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5 MBC 뉴스 25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50 환상의 타이밍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미니다Q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더 게임:0시를 향하여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10' 55 더 라이브	00 포레스트	05 실화탐사대	00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11	35 UHD 숨터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개그 콘서트(재)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3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0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08:30 애코와 친구들

09:00 엄마 까투리

09:40 야옹멍멍 귀여워2

10:30 한국기행(재)

07:00 로보카 폴리

07:45 페파피그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9:30 원더볼즈

10:00 지식의 기쁨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EBS₁

12:00 EBS 정오뉴스

12:10 극한직업 13:00 EBS 다큐프라임

13:55 EBS 초대석

14:45 몰랑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15:10 로보카 폴리(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15:55 엄마 까투리(재)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25 페파 피그(재) 16:40 딩동댕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17:00 EBS 뉴스

17:20 그림을 그려요

17:30 애코와 친구들(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 19:00 스파이더맨

19:30 생방송 판다다

20:00 머털도사 20:30 야옹멍멍 귀여워2(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마그레브의 골목길 북아프리카

-천년의 도시 오래된 유산〉

21:30 한국기행

〈그 겨울, 내 곁에 3부 겨울은 푸르다 〉

21:50 EBS 다큐프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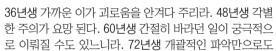
2 010-9790-8237

22:45 극한직업

23:35 EBS 초대석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2일 (음 1월 19일 乙酉)



충분한 의미를 갖게 된다. 84년생 객관적이지 않다면 실용 성이 없다. 96년생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사실을 알라. 행운의 숫자: 06,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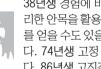


丑

子

37년생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49년생 겉이 희다고 속까지 같으리라는 생각은 오 판이다. 61년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최소한의 격식은 갖추 자. 73년생 결과를 보는 날이다. 85년생 결코 녹록치만은 않 을 것이다. 97년생 경제성부터 헤아리자.

행운의 숫자: 45, 73



38년생 경험에 비추어 냉정하게 판단함이 옳다. 50년생 예 리한 안목을 활용 한다면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미래의 보배 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62년생 고비를 넘길 줄 알아야겠 다. 74년생 고정 관념에서 벗어났을 때 새로움을 볼 수 있 다. 86년생 고진감래하는 격이다. 98년생 과도하다면 지장 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51,95

39년생 관계가 매끄러워야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느니라. 51년생 복잡하게 얽히면서 목적하는 바와 거리가 생길 수 있느니라. 63년생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75년 생 괜찮은 운세이니 강구해도 될 것이니라. 87년생 구체적 이었을 때 생산적이다. 99년생 근본적인 부분부터 손질하 행운의 숫자 : 24,72

辰

卯

40년생 근처에 있는 사람이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 하라. 52년생 기동력과 순발력이 시급하다. 64년생 기쁨은 한 순간일 뿐인데 아쉬움은 많이 남으리라. 76년생 기억에 영원히 각인 될 수 있는 일이 생기리라. 88년생 끝까지 유지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00년생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 이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42,84

41년생 낙관적인 미래이다. 53년생 내면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65년생 노고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진다. 77 년생 자신이 쏟아 부은 노력과 반비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89년생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제히 나서는 양태이 다. 01년생 다듬는다면 완성도가 높아지겠다.

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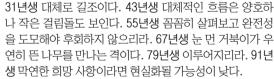
未

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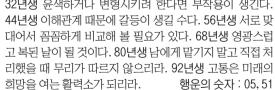
酉

戌

42년생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형상이다. 54년생 다수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사건이 있을 수 있다. 66년생 단단해 보였던 것이 쉽게 파손될 수다. 78년생 단일한 대상에 집중 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다. 90년생 달콤한 결실을 하나하 나 따게 되는 기쁨이 있도다. 02년생 대국의 구성을 새롭게 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도다. 행운의 숫자 : 49,94



행운의 숫자: 12,77 32년생 윤색하거나 변형시키려 한다면 부작용이 생긴다.



33년생 예견된다면 당연히 피하고 봐야 하느니라. 45년생 탄력이 붙을 때 집중적으로 추진하자. 57년생 화젯거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69년생 가능성은 반반이니 마음을 비우고 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81년생 누적된 것들을 체 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93년생 절차대로 행해야

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46,96 34년생 냉철한 판단에 이르기 위해서는 혜안이 필요하다. 46년생 상대의 저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하다고 볼 수 있다. 58년생 유지에 무리함이 따르지 않도록 하자. 70년 생 횃대에 동저고리 넘어가듯이 가볍게 처리 될 것이다. 82 년생 폭 넓은 안목이 길징의 형세로 이끌 것이다. 94년생 참

35년생 처음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47년생 액면 그대로 받 아들이는 것이 생산적이다. 59년생 본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차질을 빚지 않는다. 71년생 의연히 대처하자. 83년생 형식 을 제대로 갖추어야 기능을 유지하리라. 95년생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니라.

신한 변화를 모색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03,90

행운의 숫자: 25,86



행운의 숫자: 41,56